

삼성·LG ‘협력사와 따뜻한 명절’... 2조 대 납품대금 선지급

삼성 11개 관계사에 2주 앞당겨 2차 협력사에도 대금 현금지급 이재용 “어려운 상황 함께 극복”

LG 1.2조 상생협력펀드 등 운영 설 맞아 소외이웃에 생필품 전달 “고금리에 어려운 협력사 지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주)LG 대표이사 회장



이재용(오른쪽 두번째)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0월 8일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가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 광주 소재 ‘디케이’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삼성전자

재계가 경영 위기 속에서도 설 연휴를 맞아 아낌없는 상생 노력을 이어갔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11개 관계사가 1조400억원 규모 물품 대금을 최대 2주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17개 관계사는 20일까지 임직원 대상 설맞이 온라인 장터를 열고 지원에 나선다.

삼성엔 중소 협력사와 상생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자금 지원과 기술 개발, 인력 양성 교육 등 물심양면으로다. 상생·물대 펀드 운영과 인센티브 지급, 스마트공장 지원에 이어 컨설팅에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등으로 국가 차원 기술 역량 강화까지 지원하고 있다.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차협력사에도 30일 이내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거래 대금 문화를 개선하는데 앞장서왔다.

최근 극심한 경기 침체속 설 명절에도 삼성은 대대적인 상생 활동을 단행

하며 대기업과 협력사 뿐 아니라 지역 사회도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이번 온라인 장터를 통해 국내 농축수산물과 자매마을 특산물,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 제품까지 임직원들에 판매하며 고통을 분담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용 회장은 취임 직후 첫 일정으로 스마트공장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을 방문하는 등 상생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번에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사회적 책임에 힘을 다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온라인 장터 참여 중소기업 중에는 ‘천년 홍삼’과 ‘고삼농협 안성마춤 푸드센터’가 대표적이다. 스마트공장에 참여한 기업들로 생산성 향상과 품질 표준화를 통해 매출을 높이는 데 성공했으며, 이번 명절에도 풀러드는 주문을 차질없이 소화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길미자 천년홍삼 대표는 “삼성의 명절 장터와 스마트 비즈엑스포 등 다양한 판로개척 프로그램으로 이번 설에 1800박스 이상 판매 했다”며 “지난 설 대비 60% 이상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49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한우와 굴비 등 100여종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삼성도 물품 구매를 독려하고 휴게 공간에 주요 상품을 전시하는 등 판매를 촉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가와 소상공업체 판로를 넓히며 내수 경기 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엔 앞으로도 ▲공장운영시스템 및 생산/물류 자동화 시스템 구축 ▲E

SG 경영 지원 ▲마케팅/홍보 ▲기술경영 등으로 컨설팅 범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LG도 명절을 앞두고 납품 대금 1조 2000억원 규모를 최대 11일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협력사들이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LG도 상생협력펀드 등 1조2000억원 규모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2015년에는 상생결제 시스템 혜택을 3차 협력사까지 이어지도록 하기도 했다.

아울러 LG 계열사들은 올해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소외 이웃에 생필품을 전달하는 계획도 세웠다. LG전자는 ‘기

부 식단’으로 조성한 기부금으로 대한 사회복지회 암사재활원 장애 아동에 설 음식과 학용품, LG화학과 LG디스플레이는 사업장이 있는 여수와 대산, 나주와 구미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과 노인 복지시설, 독거 어르신에 명절 선물과 식료품을 전달한다. LG생활건강도 강원도와 충청도 지역 농어촌에 생활용품과 화장품을 기부하기로 했다. LG헬로비전도 강원도 원주시 지역 아동센터에 ‘마음나눔 꾸러미’를 전달하고 어린이들을 오픈스튜디오로 초청해 어린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LG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협력사를 돕기 위해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한 상생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 9일 납품 대금 2조3766억원을 최대 27일 조기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차 협력사까지 대금을 앞당겨 지급하도록 유도하며 상생 생태계를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 밖에도 SK그룹 등 대기업들은 올해에도 명절을 앞두고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하며 상생 노력을 이어갈 전망이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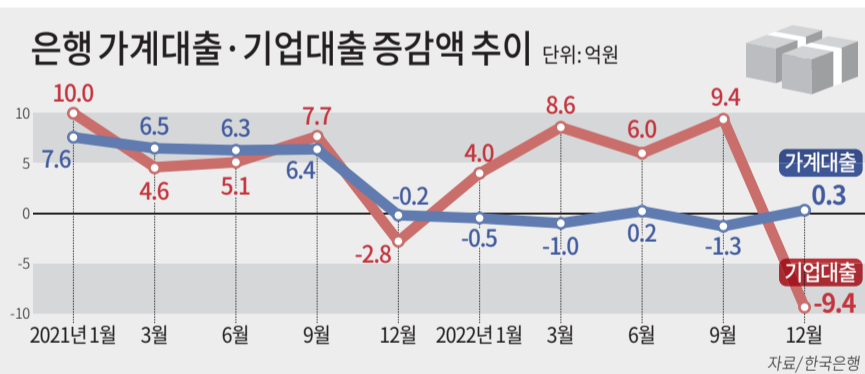
기준금리 인상에 은행 가계대출 사상 첫 감소

한은, 12월 중 금융시장 동향 지난해 잔액 1058조, 전년비 2.6조 ↓ 기업대출 전월대비 9.3조 줄어 들어

지난해 은행의 가계대출이 사상 처음 감소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금리가 상승하자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기타대출이 대폭 감소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1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58조82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조6000억원 감소했다. 2004년 통계속보치를 작성한 이후 처음이다.

황영웅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지난해 가계대출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기타대출이 22조8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며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높아진 금리수준과 규제가 이어지며 가계부채는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지난해 12월까지 감소세를 이어갔다. 12월 기타대출 잔액은 257조 9000억원으로 대출금리 상승과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이 지속되며 전월 대비 2조8000억원 줄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소폭 증가했다. 12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798조8230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 1000억원 늘었다. 전세거래 둔화로 전

세대출은 4000억원 감소한 반면, 집단대출과 개별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파트 매매·거래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분양·입주물량은 12월 들어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2월 분양물량은 4만4000호, 입주물량은 3만5000호 늘었다.

은행의 기업대출은 전월 대비 9조 3551억원 감소한 1170조823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기업대출은 재무비율관리를 위한 일시상환 등으로 6조1000억원 감소했다. 중소기업대출은 코로나19 금융지원 규모가 축소하면서 3조3000억원 줄고, 개인사업자대출도 8000억원 감소했다.

이 밖에 은행 수신은 정기에금을 중심으로 한달 새 15조2000억원 감소했다. 연말 재정집행에 따라 지자체가 자금을 인출하고, 은행간 수신경쟁이 완화되면서 가계 및 기업자금 유입이 둔화했기 때문이다. 정기에금은 전월 대비 15조1000억원 감소했고, 수시입출식예금은 가계의 연말상여금 예치 등이 늘며 11조6000억원 증가했다.

자산운용사 수신도 한달 새 4조6000억원 줄었다. 은행이 연말 BIS비율 관리를 위해 환매하고, 국고자금이 유출되며 머니마켓펀드(MMF)는 3조3000억원 감소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세수 50조 호조에도 나라살림 적자 100조 나랏빚 1000조 넘어

법인세, 소득세 등 세수가 50조원 넘게 견뎠지만 나라살림 적자는 100조원에 육박했다. 이미 1000조를 넘어선 나랏빚은 1045조원으로 불어났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견인 국세수입은 373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조2000억원 더 견뎠다.

우선, 지난해 11월까지 소득세가 15조원 더 견인 121조6000억원 들어왔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더 견인 영향이다.

법인세도 기업실적 개선으로 전년보다 32조6000억원 더 견인 101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소비와 수입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는 78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조8000억원 늘었다. 환율 상승과 수입 증가로 관세는 전년보다 2조1000억원 늘어난 9조7000억원이었다.

과태료, 변상금, 국가보조금 등세의 수입은 지난해 11월까지 전년보다 1조 4000억원 증가한 27조4000억원이 들어왔다.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에 따라 전년보다 4조원 감소한 170조5000억원이 견뎠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증가로 지난해 1~11월 누계 총수입은 전년보다 47조7000억원 늘어난 57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622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6조2000억원 늘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SK하이닉스 “DDR5 공급 위해 협업 중”

>> 1면 ‘D램 결국 1달러대로’서 계속

DDR5 D램은 속도가 DDR4보다 최대 2배까지 빨라질 수 있으면서 소비전력을 1.2V(볼트)에서 1.1V로 10% 가까이 줄이는 등 전력 소모를 20% 가량 절감했다는 설명이다. 사파이어 래피즈도 W(와트)당 성능을 평균 2.9배나

높이면서 전력 소모를 크게 줄였다. 사파이어 래피즈를 쓰려면 DDR5 D램 도입도 필수. 메모리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일찌감치 DDR5 D램을 양산 중, 삼성전자는 12나노급 D램을 16 Gb DDR5 전용으로 개발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인텔에 직접 성능을 인증받으며 적극적으로 시장 개척에 나섰다. 10나노급 4세대(1a) DDR5 서버용 D램으로 인텔 신형 CPU에 적용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은 것. 사파이어 래피즈에서 작동하는 DDR5 D램 성능과 특징점 등을 세부적으로 담은 DDR5 백서를 발행하기도 했다.

SK하이닉스류성수 부사장(DRAM 상품기획담당)은 “인텔 사파이어래피즈 출시에 맞춰 다수 고객사에게 DDR

5를 공급하기 위해 긴밀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로도 지속 성장세를 탈 것으로 전망되는 서버용 메모리 시장에서 리더십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DDR5 D램이 순식간에 보급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가격 차이가 많이 좁혀지긴 했지만 아직은 부담스러운 수준. 동작속도가 4800MHz인 1세대 제품만 나온 상태라는 것도 시기상조일 수 있는 이유다. /김재용 기자 juk@